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강원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오, 사랑>, 조우리, 사계절, 2020.	'혼자 돌아가서 미안해.' '그만 미안해해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다준 거야.' (p.213)
2	앞짱어린이도서관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허밍버드	나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삶이 다해 이승의 마지막 침대에 서로의 곁에 나란히 누운 것을 본다.나는 그들이 서로의 영혼을 존경하고 성스럽게 간직할 만큼, 내 영혼도 그들에게 그렇게 간직될 것을 알고 있다. (p.685)
3	스무숲도서관	오,사랑 - 조우리/ 사계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역시 내 소중한 권리다. 감히 누가 누구를 왕따 시켜. (p.196)
4	철암도서관	빨간호리병박, 차오원쉬엔 글 김세현 그림, 사계절	완이 빨간 호리병박을 뉴뉴 앞으로 밀어 줍니다. 뉴뉴는 머뭇거리며 큰 강을 바라봅니다. 완은 제멋대로 뉴뉴를 향해 계속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마침내 뉴뉴가 쭈뼛쭈뼛 물속으로 들어옵니다. 둘은 머리만 물 밖으로 내밀고 한참동안 서로를 바라 보았습니다.
5	뒤뚜르어린이도서관	<한밤중 개미 요정>, 신선미 그림책.	" 열이 많이 내렸네. "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에다움도서관/백정희 중앙역 /김혜진/문학동네	인생은 아주 짧아. 나한테는 지금이 전부야. 과거도 미래도 없어.
2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도우/시공사	인간은 지도를 바라보는 환타지가 있다.꼭 보물섬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내가 꿈꾸던 완벽한 장소와 대상이 존재할 것 같은 절실하고 아름다운 오해가 있다.
3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제국스캔들/유오디아	시간여행--고민에 빠진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선이 고개를 숙여 나와 눈을 맞춰온다.난, 힘없이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그가 빙그레 웃더니 자신의 이마를 내 이마에 갖다댄다."자,미우 지금 미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고민은 내게 주기"나는 순순히 그에게 이마를 내어주면서 괜히 입을 삐죽이며 볼을 부풀렸다.
4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플립/웬들린 밴 드라닌/에프	검은 속눈썹이 주변을 둘러싼 브라이스의 파란 눈은 눈부시고 찬란했다. 숨이 멎을 정도였다.
5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황수경 여섯개의 도덕이야기/애릭로메르/이세진 웁김/북포레스트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자꾸 빠져나가는게 언짢아요 당신은 책임을 지지않아요 당신에게는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과 수줍음 많은 돈 후안이 겹쳐있어요 그게 진짜 너무한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랑을 했어요 엄연히 다르죠 내 인생에 여자는 두세 명- 아니 서너명이라고 합시다-- 있었어요 다들 오랜기간,몇년씩 교제했던 사이에요 나는 그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
6	그루터기 작은도서관 /이병무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 존 그린, 김지원 웁김/북폴리오	난 널 사랑해. 사랑이란 게 그저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도 알고, 결국에는 잊히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 모두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거고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아. 태양이 우리가 밭 딛고 산 유일한 지구를 집어삼킬 거라는 것도 알고. 그래도 어쨌든 너를 사랑해.
7	호수공원작은도서관 /김연희 열세 살의 여름/이윤희 만화/창비	네가 인연이란 말 했을 때 난 그게 뭐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거 같아. 네가 예전에 준 물고기랑 새 기억나?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난 개네들이 친구처럼 보여,
8	강촌공원5분걸음예쁜작은도서관 전성희 낯선 사랑을 찾아서/닉 밴톡/김영사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 긴 시간을 기다려온 나입니다. 난 각오가 되어있어요. 약간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겠어요.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시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책돌이도서관/이향림	애린 왕자 (경상도- Gyeongsang-do dialect)/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최현애 옮김/ 이팝	<p>어린왕자 경상도 사투리 버전이다.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활자로 보는 사투리는 어렵다. 눈으로 먼저 보고 소리내서 읽으니 더 재밌다.</p> <p>*책 속 한 문장 : " 나는 여즉 내한테는 흔한 여러 얼라들하고 다를 기 없는 한 얼라일 뿌인기라. 그래가 나는 니가 필요 없데이. 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제. 나도 마 시상에 흔해빠진 다른 미구하고 다를기 하나도 없능기라. 군데 니가 나를 질들이모 우리사 서로 필요하게 안되나. 니는 내한테 이 시상에 하나 뿌인기라. 내도 니한테 시상에 하나뿌인 존재가 될 끼고 " "인자 쯤 알 거 가따." 애린 왕자가 카데. "꽃 하나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질들인 거 같데이....."</p>
2	아이숲어린이도서관/문상희	더 설리 클럽/ 박서련/ 민음사	<p>20대의 상큼한 사랑이야기에 읽는 내내 즐거웠던 책. 하지만 상큼한 사랑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닌 따뜻한 감동도 있다. 한국의 '설희'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호주의 '설리'들을 만나 사랑을 하고 우정을 쌓는 이야기.</p>
3	책문화공간 봄/ 위명화	혼자가 혼자에게/ 이병률 글/ 달	<p>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 중인 나에게 혼자일 때 할 수 있는 것들, 혼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혼자여서 하게 되는 것 들을 작은 토닥임처럼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책이다.</p> <p>*책속 한 문장: 바람에 동백나무가 잠시 흔들린 것뿐인데 나는 숨이 가빴다. 한때 버거워했던 누군가의 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리고 집안에 있던 그 사람이 식구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것은, 별안간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올 것 같아 다리에 힘을 잃고 말 것 같은 것은.....얼마나 황홀하도록 벅찬 일인가. 그 제주의 자그마한 집엔 몇십 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그 사람이 살았을 것 같다. 그 사람의 전생에도, 그 전생의 전생에도 그 사람이 산 자리는 오래 그곳일 것 같다.</p>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책마실도서관	당신과 함께 /잔디어/다림	노부부 마리와 조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하여 애뜻한 사랑과 기억, 추억이라는 소재를 생각지 못한 반전을 통해 긴 여운과 잔잔한 감동을 아름답게 담겨있습니다.
2	예성 작은도서관	미 비포 유/조조 모예스/살림	영화로도 유명한 소설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애뜻한 사랑까지 모두 담겨있습니다. "대담무쌍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안주하지 말아요. 그 줄무늬 타이츠를 당당하게 입고다녀요. ..내 생각은 너무 자주 하지 말아요. 당신이 감상에 빠져 질질 찌는 건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잘 살아요. 그냥 살아요. — 사랑을 담아서, 윌
3	개인회원/손수정	열세 살의 여름/이윤희/창비	사랑하면 뭐니뭐니해도 사춘기시절의 풋사랑이죠... 몽글몽글 올라오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찌할바 몰라 아련하고 아프기만 했던 나의 사춘기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처럼 설렘은 없어도 그때의 아련한 감정은 아직도 남아 있는거 같습니다.
4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미스 럼피우스 / 바버러 쿠니/ 시공주니어	네가 애야 할 줄이 안 가지 더 좋았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5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고 녀석 맛있겠다/ 미야니시 타츠야/달리	어빠기 네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지!"
6	그나라어린이도서관	허먼과 로지/거스 고든/그림책공작소	딱딱한 도시의 삶에 치진 두 주인공 허먼과 로지가 운명적으로 만남의 장면은 본문 전체가 두 남녀의 만남을 축복이라도 하듯 달빛 찬란 한 도시의 밤이 펼쳐진다. 아무런 글 텍스트가 없지만 이 둘의 운명적 사랑의 시작을 부정할 독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쁜 일상 운명 적 만남을 꿈꾸거나 추억하는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림책이다.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채은아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은중경, 회심록 / 글 송언, 그림 김태현 / 봄봄	어머니의 크신 은혜 땅에 견줄 수 없고, 아버지의 높은 은덕 하늘에 비길 수 없으리니, 부모님의 그 정성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무겁다.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박현진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김하나, 이슬아, 김금희, 최은영, 백수린, 백세희, 이석원, 임진아, 김동영/문학동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아하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니까. (p.167)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정에서	빛을 비추면/김윤정, 최덕규/윤에디션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곧 빛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비추는 곳곳에 세상에 필요한 사랑이 보이는 책이다. 이 책이 비추는 사랑을 닮고 싶다.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쇼코의 미소/최은영/문학동네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했지만 여자는 자식이 준 사랑이야말로 하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없는 순정하고 따뜻한 사랑.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초록거북/릴리아/킨더랜드	"아빠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항상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박계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난다.	배추는 먼저 올려보냈어. 겨울이 지나면 너 한번 내려와라. 내가 줄 것은 없고 만나면 한번 안아줄께 (해남에서 온 편지) 한번 안아줄께 라는 말에 눈물이 났다. 힘겨울 때 고민하며 내놓은 위로의 말보다 왜냐고 묻지도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최고의 위료가 될 때가 있다. 그 행위에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조지형	행복한 고양이 아저씨, 아이린 래섬, 카림 삼시- 바샤, 시미즈 유코, 비룡소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커져서 아저씨의 마음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답니다
3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육이영	쓰담쓰담,전금하, 사계절	마음이 어지럽고 왜 이런기분이 드는지 모르는데 그게 첫 사랑일듯하네요 답답하기까지한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빨간 불일때 마음을 초록색으로 바꿀수 있는것은 쓰담쓰담 사랑해주는 마음!!
4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권영미	모파상단편선중 달빛/기 드 모파상/책만드 는집	"흔히 우리 여자들이 사랑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야. 그날 밤 언니의 진짜 애인은 달빛이었어."
5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자영	잉글리시페이션트.마이클온다치.그책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헤로도투스 책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읽어주었던 한 여자와. 나는 그녀가 모닥불 너머에서 남편을 놀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래를 들지 않고 책에서 읽어내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6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박정은	숲에서 한나절, 남영화, 남해의 봄날	너는 그렇게 힘겹게 기어이 봄을 데려왔구나.
7	용강동작은도서관 /최은숙	사랑의 생애,이승우,위즈덤하우스	진정으로 살지 않는 자가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정의되지 않는 것이 신이고 삶이고 사랑이기 때문이다.
8	생글작은도서관 /정영선	꿈길이 아니더라도 꽃길이 될 수 있고 /조은아 산문집 /꿈공장플러스	"어쩌면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꾸준함일지도 모르겠다." (p.85) 꾸준하게 조건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 '엄마'라는 이름의 존재를 가진 모든 이들이 읽고 늦지 않게 사랑을 표현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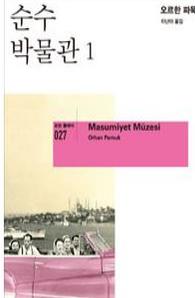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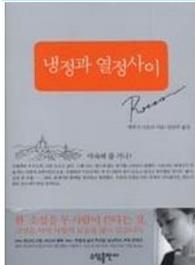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9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북악하늘작은도서관/임명 진	사랑의 역사 - 이성애와 동성애 그 대결의 기록 / 루이-조르주 탕 / 문학과 지성사	이성애적 생식이 인간 사회의 생물학적 토대라 해도, 이성애 문화는 다른 문화들 가운데 한 구성물일 뿐이고, 이 점에서 유일하고 보편적 인 본보기로 표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성애를 '자연의 질서'에서 끌어내어 '시간의 질서' 속으로, 다시 말해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 야 한다.
10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송은영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이도우 / 시공사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세상의 모든사랑이 무사하기를...
11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박순선	방긋 아기씨/윤지희 글·그림, 사계절	태어나서 한번도 웃지 않았던 아기를 이상하게 여긴 왕비는 아기를 웃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기는 웃지 않았어요. 그런 데 어느 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본 아기가 방긋 웃는 것이었지요. 아기의 눈엔 온통 엄마의 모습만 보였으니까요. 아기에게 엄마가 얼마 나 중요한지 느껴졌어요.
12 꿈틀어린이도서관 /이소영	책 읽어주는 남자/베르하르트 솔링크/시공 사	우리의 인생의 층위들은 서로 밀집하여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의 것에서 늘 이전의 것을 만나게 된다.
13 우디안 나무그늘 작은도서 관 / 이은경	프리즘. 손원평. 은행나무.	누가 내게 다가온다면 난 이렇게 반짝일 수 있을까. 또 나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빛내주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p.261)
14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나의 엄마/ 강경수 / 그림책 공작소	'엄마'라는 말을 평생 몇번이나 불러보았을까요? 평생 수없이 불렀던 말, 어느 순간 수없이 듣는 말. 같은 단어이지만 읽을때 마다 다르 게 다가오는 '엄마'. 이제는 부르기 보다는 듣는게 더 많네요. 오늘 엄마를 불러보며 안부를 전해보세요~
15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이해숙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조영글/ 봄별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시작된 거짓말이지만 좋아하는 마음만은 진짜라고 고백하는 천진한 아이들의 두근두근 러브스토리~
16 다온작은도서관 /최서윤	플립 / 웬들린 밴 드라닌/ 에프	누구나 일생에서 단 한 번 무지개 빛깔을 내는 사람을 만난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되지.
17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박하린(미모)	오, 사랑 / 조우리 / 사계절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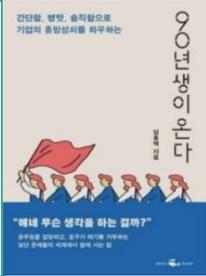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이귀연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이도우/시공사	이유 없이 슬퍼진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유를 알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외면하고 싶으니까 모른 척 할 뿐이다. (p.91)
2 문수산더샵작은도서관 문신임	커피타는 고양이/윤소해/책들의 정원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다. 그것은 고양이와 음악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고양이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서로 치유해가며 사랑하는 이야기)
3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이귀연	미 비포 유!/조조 모예스, 김선형 옮김/살림	그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정말로 그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도저히 볼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 생각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지 당신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속에 꼭 함께 있어주어야 해요. (p.517)
4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다산의 마지막 습관/조윤제/청림	나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을까? 나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5 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 김용진	여름은 오래 그 곳에 남아/마쓰이에 마사 시/비채	작가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사랑 이야기와 잘 만나서 여름에 어울리는 여운을 줍니다.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인천지부			
소속 / 이름	책 사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콩세알도서관/ 권양녀		순수박물관 1,2/ 오르한 파묵/ 민음사	우리의 행복이 너무나 깊고 커서, 삶이 그 뒤뜰에서 우리에게 보낸 장난은 이 귀걸이를 잊듯이 곧 잊어버렸다.
2 늘푸른어린이도서관/박소희		여보, 나의 마누라, 나의 애인/ 윤이상/ 남해의 봄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사랑의 정의를 바꿨을지도 몰라
3 콩세알도서관/ 문점숙		냉정과 열정 사이/ 에쿠니 가오리/ 소담출판사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하듯,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돌아본 준세이의, 기억 속보다 야윈 볼.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 피렌체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두오모의 꼭대기에서. 부드러운 저녁 햇살 속에서.

<p>4</p> <p>춤추는달팽이도서관/최선미</p>		<p>이매망량애정사/ 김나영/ 네오픽션</p>	<p>"새장의 새는 그대가 아니라 나였소. 당신이, 당신이 내 새장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구려" 얼마나 안기고 싶었던 품인가. 은재도 무원을 꼭 끌어안았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피어있는 부용화에 나비가 살포시 내려 앉았다. 그 곁에 선 두 사람이 서로를 보듬고 입을 맞추니 비로소 용서와 구원이 마음을 허무는구나. 아, 가을날은 아름답고, 온 세상은 행복할 따름이라. 이들의 사랑 이야기 또한 어여쁘기에 '이매망량애정사'에 덧붙여 전한다.</p>
<p>5</p> <p>꿈나무도서관/김광원</p>		<p>90년생이 온다/임홍택/웨일북</p>	<p>신혼 초 이 남자는 다 좋은데 왜 나와 안 맞는 부분이 이리 많을까 고민 했을 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내 인생의 책이 되어주어 결혼생활을 한 듯 하다. 93년생 아들 하나 키우며 도저히 이해 안되고 버거울 때 <90년생이 온다>가 나를 버티게 해 준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표현된다는 이들,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하란다. 29살 된 나의 멋진 아들. 바라보기만 해도 든든한 나의 짝사랑. 두근두근 사랑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p>
<p>6</p> <p>자람도서관/노은진</p>		<p>지구에서 한아뿐/정세랑/ 난다</p>	<p>SF 환경 로맨스! 그거 알아? 내가 너한테 반하는 바람에, 우리별 전체가 네 꿈을 꿨던거?' (p.101) 반할 수밖에 없는 정세랑의 달달 로맨틱 문장들이 마구 튀어나온다. 업사이클링 전문가 한아와 경민, 외계인 경민의 사랑이야기.내가 사랑하는 이의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p>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주소정	가재가 노래하는 곳/델리아 오언스/살림	<p>개인이 살아가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를 읽고 풀어나가는 것이 삶이 된다. 밥만 먹고 살 수 없듯, 사랑만 하며 살 수 없고 일만 하며 살 수 없다. 1950년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습지 판잣집에서 사는 카야 클라크가 있다.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본능, 본성에 따라 외롭게 사는 아이가 소녀가 되고 여자가 된다. 조류전문가가 되어 책을 쓰고 시를 쓰고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작은도시에서 인종, 계급, 차별을 받기도 한다. 도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서 서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한다. 작가는 '고립이 인간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 번역가나 문단에서는 성장소설이라고 하고 살인미스터리, 추리, 법정스릴러 등 이 소설이 달고 있는 꼬리표는 많다. 단언컨대, 이 소설은 '로맨스'이다. 고립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데 테이트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p>
2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로버트 먼치/안토니 루이스	<p>7월 주제가 가슴 두근두근 로맨스 사랑이란 말에 <여단왕자> <소다기> <멜> <따로 따로 행복하게> <마지막 잎새> <신데렐라> <신데렐라> <중 그래도 부모님> 자녀가 나누는 사랑만큼 두근 거리는게 있을까요?</p> <p>아기를 품에 안고 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아들에게 불러주던 노래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p> <p>나이가 너무 들어 노래를 불러 줄 수 없는 엄마를 위해 아들은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이렇게 노래를 불러 줍니다</p> <p>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 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p> <p>한참을 생각한 아들은 그날 밤 막 태어난 딸을 안고 노래를 불러줍니다</p> <p>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p> <p>편집자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 생각했지만, 어른이 어른들을 위해서 이 책을 산다는 수 없이 많이 팔린 책 읽으며 읽은 수록 삶의 윤희가 느껴져 마음 속에서 창애가 있는 추억공 '모든'은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집을 다움니다. 애를 써보지만 '나'를 이해받고 함께 살아간다는 일이 힘에 겹치만 합니다. 그러던 중 부엌 한 구석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사랑을 모르던 남편 애버릿도 모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부엌 구석구석에 그려놓 은 모드의 삶은 총천연색이었습니다.</p>
3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내 사랑 모드/랜스 울버러/모드 루이스/남해의봄날	<p>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여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p>
4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권민정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린 판덴베르흐/카티에 페르메이레/고래이야기	<p>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여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p>

7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호남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간일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1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김경희	플립/웬들린 밴 드라닌/에프	"그림은 부분을 합친 것 이상이란다"(...)소는 혼자 있으면 그냥 소 일뿐이고 풀밭은 그냥 풀과 꽃일 뿐이고 나무 사이로 엿보는 햇살은 그냥 빛줄기일 뿐이지만 그 모두를 합치면 마법이 일어난다고 했다.아빠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가슴으로 느낀 건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 올라간 어느 날이었다.
2	하늘을 나는 도서관/노소희	사랑이 훅/진형민/창비	"이종수, 너는 왜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줘?"하고 큰 소리로 따져 묻고 싶었다. 그런데 이종수가 그동안 자기도 뭔가를 쪽 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난 그냥 널 좋아했어. 이종수가 농구공을 텅, 텅, 텅기며 멀어져 갔다. 엄선정은 영어 문제집을 손에 든 채 농구대 옆에서 어쩔줄 모르고 서 있었다.
3	여우네도서관/김명숙	그림자를 판 사나이/아델베르트 폰 샴이소/열림원	당신에 의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듯이, 저는 기꺼이 행복하게 죽을 것입니다.
4	여우네도서관/김명희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왔을까/김탁환/해냄	무조건 이야기를 해. 마음을 훔치는 데는 이야기만한 게 없거든. 마음만 훔치면 가령 몸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따라와